



경제 돋보기

■ 보해소주 수도권 공세 왜?

인구 줄어드는 지역 매출론 한계

보해소주가 '종알'을 노크하고 있다. 대대적인 물량공세는 아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팔도소주 이벤트 등을 활용해 수도권을 공략하는 우회전술을 쓰고 있다. 북분자주나 매취순의 전국적 인기를 활용해 '앞새주'를 선보이는 틈새 마케팅, 호남향우회와 여론 주도층을 장성 공장으로 초청하는 체험 마케팅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90년대 초반 감행했던 '수도권 공세'와는 사뭇 다르다. 회사의 미래를 위해 수도권 시장에 뛰어들긴 하지만, '올인' 하지는 않는 신중한 자세다. 왜일까? '줄어드는 인구'와 '실패의 기억' 때문이다.

북분자·매취순 인기 타고 '앞새주' 공세

두번의 실패 불구 '틈새 마케팅' 승부걸어

◇패배의 기억이 발목을 잡다= 보해의 수도권 공세는 크게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첫째는 요즘 소주 메이커 사이에 유행인 '저도주 경쟁'이다. 보해는 17년 전인 지난 1992년 당시로서는 파격이라고 할 수 있는 15도짜리 '보해라이트'를 출시하며 수도권 시장에 접근했다. 하지만, 당시 25도에 익숙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데는 실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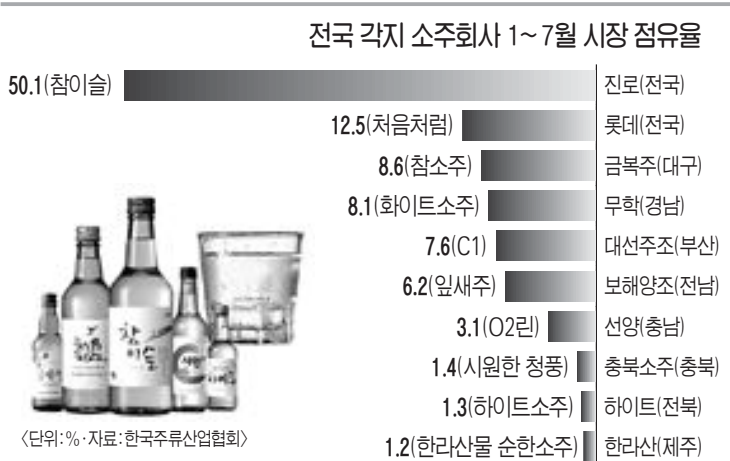
2년 후인 1994년 보해는 '시티(city)'소주를 앞세워 대대적인 수도권 공략에 나선다. 소비자에게서 거처 정해진 23도짜리로, 감미료를 넣지 않은 산소 소주라는 이미지를 내걸었다. 호텔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개최하고, 수도권에 100만 병이 넘는 무료 샘플을 뿌렸다. 한 해 광고 예산과 맞먹는 16억원의 광고비를 쏟아부었고 영업인력도

10배에 달하는 200명을 투입하는 등 총력전이었다. 연고지인 전남 애주가도 맛을 보지 못할 정도로 수도권에만 물량을 쏟아부었지만 적자까지 잔뜩 끌어안았다.

이제는 사정이 다르다. 지역에서의 '보해' 위세도 예전만 못하다. 우선 인구 수가 크게 줄었다. 올 상반기 광주·전남 사람 수(외국인 제외)는 334만2천420명으로 지난 1994년에 비해 무려 12만7천486명이 줄었다. 인구 4만 명 수준인 군 3개가 사라져 버린 셈이다. 주요 소비자인 젊은층은 줄고 노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매출 감소를 부추겼다.

◇소주 먹음 사람이 사라지다= 이런 기억 때문에 보해의 전국구 진출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요즘 상황이 달라졌다. 분가치 영업에 성공하면 금성장은 기대하지 못해도 안정적 경영은 유지할 수 있었던 과거와는 180도 달라진것. 극심한 전남 인구 유출로 시장도 줄고 있어 장기적으로 회사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지난 1994년만 해도 보해는 광주·전남에서 83%, 전국 9%의 점유율을 차지했고 매출액은 870억



원에 달했다. 당시 광주·전남 인구가 346만9천906명으로, 이때만 해도 광주·전남 식당에서 '소주 주세요'라고 하면 무조건 '보해 골드'를 내놓았다.

이제는 사정이 다르다. 지역에서의 '보해' 위세도 예전만 못하다. 우선 인구 수가 크게 줄었다. 올 상반기 광주·전남 사람 수(외국인 제외)는 334만2천420명으로 지난 1994년에 비해 무려 12만7천486명이 줄었다. 인구 4만 명 수준인 군 3개가 사라져 버린 셈이다. 주요 소비자인 젊은층은 줄고 노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매출 감소를 부추겼다.

인구 감소는 전국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올 상반기 지역 점유율은 지난 1994년과 비슷한 82% 수준이지만 전국 점유율은 6%로 떨어졌다. 소주 출고가는 상승(300ml 보해 골드 한 병 530원→360ml 앞새주 900원)했지만 매출액은 오

히려 85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수도권에서 빛을 보다=일단, 최근 수도권에서의 '앞새주'의 신중한 행보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업계에서는 북분자주나 매취순의 전국적 인기를 활용해 '앞새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틈새 마케팅이 먹혀들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인지 업계 1위 진로가 80% 이상 장악한 서울·수도권 시장 점유율도 상승세다. 지난 2월 0.41%에 불과한 점유율은 5월 0.57%→6월 0.88%로 상승했다. 보해는 이번 기회에 서울시장 점유율을 올해 안에 1%까지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보해 측은 "인구가 줄고 있는데 지역에만 머물다가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면서 "지방시장 수성과 수도권 공략 프로젝트를 조심스럽게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명물' 무등산 수박

15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청과매장에서 광주의 명물인 무등산 수박을 선보여 고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지역 백화점 추석상품 '관측전'

광주신세계-굴비·청과·정육 등 1천여종 준비

롯데 광주점-중저가 선물세트 10%이상 늘려

현대 광주점-18일부터 한가위 특설매장 마련

추석을 보름 앞두고 광주지역 백화점들이 추석선물세트를 선보이는 등 본격적인 관측 경쟁에 돌입했다.

광주신세계백화점은 14일부터 지하 1층 식품매장에 추석선물세트 특설코너를 열고, 굴비 등 추석선물세트를 미리 선보였다.

18일부터는 본격적인 추석 선물세트 판매에 들어간다. 청과·정육·공산품·건장식품 등 1천여종의 다양한 추석 선물세트를 준비하고 접수데스크도 설치해 판매 및 상담 등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정육, 수산, 청과 부문에 비중을 두고 관련상품을 전년보다 30%가량 늘렸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지난달 말부터 추석선물 예약판매에 들어간 데 이어 18일부터 본격적인 추석선물 특선에 돌입한다.

고급 선물 세트인 명품특선 '수'를 비롯해 롯데 단독 선물세트 '진',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명인명장 '훈', 생산 이력제 등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신' 등 롯데 4대 특선으로 고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겠다는 전략

이다.

특히 올해는 중·저가 선물세트인 '행복제안' 상품을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렸다.

신선식품의 경우 '식품 선물세트 3배 보상제' 이벤트 열어 유통기간 경과, 원산지 표시 위반, 무허가 제품 판매를 했을 경우 상품 가격의 3배를 보상해준다.

현대백화점 광주점도 18일부터 '2009년 한가위 선물 특설매장'을 열고 추석선물세트를 판매할 예정이다.

광주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올해 추석에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때문에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육과 수산, 청과 등을 중심으로 추석 선물세트를 전년보다 30%가량 늘렸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10대 그룹 CEO 지방대 출신 '약진'

한진 30.3%, 금호아시아나 28.6% 順

지방대 출신 10대 그룹 계열사 최고경영자(CEO)가 작년보다 늘었다. 나이도 젊어졌다. 재벌닷컴(www.chaebul.com)은 지난 6월말 현재 10대 그룹(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GS 현대중공업 금호 한진 두산)계열사 사장급 이상 CEO(총수 가족 제외) 471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10대 그룹 CEO 출신 대학별로 서

올대는 작년 26.9%에서 올해 26.2%로 0.7%포인트 줄었다. 그러나 지방대 출신은 작년 14.8%에서 올해 15.6%로 0.8% 포인트가 늘었다. 특히 한진그룹의 지방대 출신 CEO비율이 30.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금호아시아나가 28.6%로 뒤를 이었다.

10대 그룹 CEO의 평균 연령은 55.6세로 작년 55.9세에 비해 0.3세 줄었다. 한진이 작년 평균 57.3세에서 올

■10대그룹 사장 출신대학

구분	그룹명	총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지방대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	삼성	69	16	23.2	6	8.7	13	18.8	9	13.0	
2	현대차	48	18	36.7	1	2.0	3	6.1	8	16.3	
3	SK	68	21	30.9	11	16.2	11	16.2	7	10.3	
4	LG	58	25	43.1	4	6.9	8	13.8	9	15.5	
5	롯데	49	10	20.4	7	14.0	4	8.0	8	16.0	
6	GS	49	10	20.4	12	24.5	11	22.4	4	8.2	
7	현대중공업	16	6	37.5	1	6.3	2	12.5	2	12.5	
8	금호아시아나	42	8	19.0	3	7.1	7	16.7	12	28.6	
9	한진	33	3	9.1	3	9.1	0	0.0	10	30.3	
10	두산	39	7	17.9	5	12.8	4	10.3	5	12.8	
총합			471	124	26.2	53	11.2	63	13.3	74	15.6

* 10대그룹 계열사 CEO 중 직급이 사장급 이상 대상
* 충주 직계나 친인척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해 55.8세로 1.5세가 줄어 가장 차이가 컸다. 이에 비해 금호는 올해 59.6

세로 0.7세가 높아져 CEO가 가장 노령이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이부진씨 삼성에버랜드 전무로 영입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삼성에버랜드는 경영전략담당 전무로 이부진(39·사진) 호텔신라 전무로 영입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전무는 2001년부터 호텔신라에서 경영전략 업무를 맡아 익힌 전문가

서비스 분야의 전문성과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에버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 전무는 이견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1남2녀 중 장녀로 대원외국어고와 연세대 아동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 삼성복지재단에 입사해 호텔신라 기획팀 부장과 상무를 거쳐 지난 1월 전무로 승진했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 1,653.40 (+18.49)

코스닥지수

▲ 531.58 (+4.70)

금리 (국고채 3년)

▼ 4.47% (-0.02)

원·달러 환율

▼ 1,218.50원 (-6.6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자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제활동건리스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제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근린시설/원룸	대표이사 010-7570-7525	숙박/민간	대표이사 010-7570-7525	공장/토지	대표이사 010-7570-7525
소매지 농성동 대13,213838 송림동 대138,21409 송림동 대192,21348 달림동 대450,214009 도원동 대1818,21502 신라동 대894,21888 신라동 대338,2133 송림동 대436,212538 주월동 대364,211008 동성동 대700,212005 신라동 대728,213280 방림동 대238,21514 백운동 대159,21482 주산동 대740,213118 계림동 대215,21407	대표이사 010-7570-7525 갑정가 63%4천 30억 9%12천 4%3천 84%6천 3%12천 10%7천 5%4천 2%2천 19%3천 27% 2%9천 2%9천 3%9천 2%4천	대표이사 010-7570-7525 갑정가 63%4천 30억 9%12천 4%3천 84%6천 3%12천 10%7천 5%4천 2%2천 19%3천 27% 2%9천 2%9천 3%9천 2%4천	대표이사 010-7570-7525 갑정가 63%4천 30억 9%12천 4%3천 84%6천 3%12천 10%7천 5%4천 2%2천 19%3천 27% 2%9천 2%9천 3%9천 2%4천	대표이사 010-7570-7525 갑정가 63%4천 30억 9%12천 4%3천 84%6천 3%12천 10%7천 5%4천 2%2천 19%3천 27% 2%9천 2%9천 3%9천 2%4천	

미려의 가치를 창조하는
수완 코리아랜드 공인중개사 사무소
062)951-6800
H.P. 010-3666-8949

수완 지구
수완 롯데마트 옆
팰리스타워빌딩
중앙메디컬빌딩 (분양임대)
뉴 타운 빌딩
상가분양사무소 직원모집
• 남 0명, 여 0명(기본급+성과급)
• 나이 25~35세

대인동삼일부동산
☎ (대)223-1140, 5210 ☎ 011-602-2532
(광주은행 산본점 옆,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